

2022
수특

2022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시 01
해당화, 한 복합지문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박재삼, '한'

교재 변형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당신은 ㉠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철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체 하였더니,
㉢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입니다그러.

㉣ 시름없이 꽃을 주워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한용운, '해당화'

(나)
㉤ 감나무 짝 되랴,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 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이것이 제대로 번을 데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도 ㉥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번어 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
본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느껴온 열매가 될는지 몰라!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전생(前生)의 ㉦ 내 전(全) 설움이요 전(全) 소망
인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경어체를 구사하여 강인한 어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도치법을 활용하여 특정 대상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는 (나)와 달리 자연물에 건넨 화자의 말을 인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였다.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당신'이 돌아오기로 한 특정 계절을 환기하고, ㉥은 화자와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을 차이를 초월하는 것과 관련된다.
- ② ㉦과 ㉥은 모두 시적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에 해당한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에게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다.
- ④ ㉦은 '당신'의 행위의 의미를 화자가 깊이 있게 파악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은 화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대상이다.
- ⑤ ㉦은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고, ㉥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

3. <보기>를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과 마찬가지로, 시를 읽을 때도 수식언, 즉 관형어나 부사어의 의미 및 기능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효과적인 독법(讀法)이 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관형어나 부사어에는 그것이 수식하는 다양한 존재, 시·공간이나 상황, 동작이나 상태 등에 대한 화자의 관점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 ① ㉠은 '말하기로'를 수식하는 말로, 화자에게 해당화가 피었음을 먼저 말하려는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하군.
- ② ㉡는 '봄바람'을 수식하는 말로, 기다리던 시간이 드디어 되었음을 고마워하는 화자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군.
- ③ ㉢는 '물었습니다.'를 수식하는 말로, 화자의 고독한 심정이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군.
- ④ ㉣는 '등 뒤'를 수식하는 말로, 대상에 대한 화자가 지닌 원망의 감정을 짐작하게 해 주고 있군.
- ⑤ ㉤는 '설움'을 수식하는 말로, 대상으로 인해 갖게 된 한스러움에서 점차 벗어나게 된 상황을 짐작하게 해 주고 있군.

복합 지문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당신은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철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체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 경대 위에 놓습니다그러.

시름없이 꽃을 주워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한용운, '해당화'

(나)

감나무쯤 되랴,

㉠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 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이것이 제대로 번을 데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번어 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 본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느껴운 열매가 될는지 몰라!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전생(前生)의 내 전(全) 설움이요 전(全) 소망인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박재삼, '한'

4.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시적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② ㉡ : 시적 화자의 성별을 짐작할 수 있는 시어이다.
 - ③ ㉢ : 시적 화자에게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다.
 - ④ ㉣ : 구체적 대상을 시적 화자의 추상적 정서로 나타낸 것이다.
 - ⑤ ㉤ : '그 사람'도 시적 화자를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6.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설움으로 살았을지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다.
 - ② 감나무 열매의 빛깔은 노을빛과 연결되어 서러움과 한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자신의 사랑을 감나무에 비유하며 한 많은 자신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화자는 그 사람의 거부로 인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한을 노래하고 있다.

7. 다음은 (가)의 화자에 대한 (나) 작품의 화자의 말을 정리한 것이다. (나)의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입과 이별한 상황이군요. ② 하지만 당신은 나의 입과는 달리 입이 아직 살아있기에 다시 만날 수도 있겠군요. ③ 저는 다시는 입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에 빠져 좌절하고만 있어요. ④ 그래도 어쩌면 입이 살아 생전에 나를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요.

8. 다음은 (나)의 화자에 대한 (가) 작품의 화자의 말을 정리한 것이다. (가)의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당신도 나처럼 입과 헤어져서 간절히 입을 그리워하고 있군요. ② 저는 입이 봄이 와서 해당화가 피기 전에 돌아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③ 하지만 이미 봄이 왔음에도 입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④ 이런 저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은 저에게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뒷동산에 올라서 흑여 입이 올라봐 봄바람을 씹며 건너편 산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9. (가)와 (나)에서 화자의 정서와 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한과 서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로움에서 체념으로 바뀌고 있다.
 - ③ 대화하는 방식으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비유와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쓸쓸함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⑤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가 슬픔을 가진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10. (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 ③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 있다.
 - ④ 자연물을 매개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 ⑤ 직설적인 어조로 시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당신은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 철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체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습니다그러.
시름없이 꽃을 주워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돌도 되고 셋도 됩니다.

-한용운, '해당화'

(나)
감나무쫂 되랴,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 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이것이 제대로 번을 데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번어 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
본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 느껴온 열매가 될는지 몰라!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 전생(前生)의 내 전(全) 설움이요 전(全) 소망인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박재삼, '한'

1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반어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유사한 시구를 처음과 끝에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이미지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생동감 있게 드러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도치법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 ⑤ (가)는 (나)와 달리 담담한 어조로 화자의 심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시적 화자와 대조되는 순진무구한 아이들에 해당한다.
- ② ㉢ : 입과 재회하지 못하는 슬픔과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나타나 있다.
- ③ ㉣ : 자신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나타나 있다.
- ④ ㉤ : 상대방이 알아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 사랑의 대상이 전생에 불행했음을 알고 난 뒤에 느끼는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13. (나)와 <보기>의 공통적인 특징을 빌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구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그립고 그리워도 볼 수가 없어
 마음은 바람에 나부끼는 종이 연 같아라.
 뭇자리라면 말아 두고 돌이라면 굴러 낼 수
 있으려만
 이 마음의 응어리 어느 때나 고칠까.
 그리운 사람은 멀리 하늘 모퉁이에 있는데
 구름 뜬 하늘 아래 늘어진 푸른 버들
 아득한 시름은 끝이 없어라.
 홀로 앉아 공후를 타니
 공후는 하소연하는 듯 흐느끼는 듯
 다 타도록 비단 적삼 젖는 줄도 몰랐네.
 원컨대 쌍쌍이 나는 새가 되어서
 임 향한 창 앞에 서 있고자.
 원컨대 밝은 달빛 되어
 임의 방문 휘장 뚫어 비취들고자.
 슬픈 노래 잠 못 드는 밤 어찌 이리 긴고.
 꿈속에도 요산 남쪽 건너지 못하였네.
 기나긴 그리움에 공연히 애만 끊노라.
 - 성현, '장상사(長相思)'

-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한다.
- ② 색채 대비를 통해 이미지를 선명하게 부각한다.
- ③ 사물의 양면적 속성을 활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 ④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 ⑤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획득한다.

14. (가)의 '나(㉠)'와 <보기>의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서시'

- ① ㉠과 ㉡는 모두 지나온 삶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
- ② ㉠과 ㉡는 모두 임이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다.
- ③ ㉠은 ㉡와 달리 시간의 흐름 속에 감정을 전환하고 있다.
- ④ ㉡는 ㉠과 달리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⑤ ㉠은 ㉡와 달리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당신은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철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체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습니다그러.

시름없이 꽃을 주워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돌도 되고 셋도 됩니다.

-한용운, '해당화'

(나)
감나무썸 되랴,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 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 이것이 제대로 번을 데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번어 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 본데,

그러나 그 사람이
㉢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느껴운 열매가 될는지 몰라!
㉣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전생(前生)의 내 전(全) 설움이요 전(全) 소망인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박재삼, '한'

1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② 대구적 표현을 통해 시적 공간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③ 화자와 대화를 나누는 구체적 대상이 나타나고 있다.

④ 반어법을 사용하여 관념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⑤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6. ㉠~㉤에 초점을 맞추어,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으로 미루어 볼 때, 화자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으로 미루어 볼 때,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다소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③ ㉢으로 미루어 볼 때, 화자는 '그 사람'이 안마당에 심고 싶던 열매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했을 것이다.

④ ㉣으로 미루어 볼 때, 화자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람'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워했을 것이다.

⑤ ㉤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화자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했음을 알 수 있다.

17. (가), (나)와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돌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돌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① <보기>는 (가)와 달리 수미 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였다.
- ② (나)와 <보기>는 도치의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경을 잘 보여 주었다.
- ③ (가)와 <보기>는 모두 경어체를 통해 부드러운 어감을 형성하였다.
- ④ (가)는 <보기>와 달리 세련된 시어와 감각적 묘사가 두드러진다.
- ⑤ <보기>는 (나)와 달리 역설법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정답 및 해설

교재 변형 문제

1. <답> ③

(나)의 1연에서 도치법을 활용하여 '감나무'라는 시적 대상을 시의 첫머리에 제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2. <답> ①

(가)에서 '당신'은 봄이 와서 해당화가 피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화자에게 약속했으므로 ㉠은 '당신'이 돌아오기로 한 특정 계절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 화자는 이승, '그 사람'은 저승에 머물고 있고 화자는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자신의 사랑과 그리움이 저승에서라도 감나무 가지처럼 '그 사람'의 등 뒤로 뻗어 가서 머리 위에서 휘드러지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와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을 차이를 초월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3. <답> ①

㉢는 '말하기로'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는 사실을 화자에게 서로 먼저 말하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복합 지문 문제

4. <답> ②

(가)와 (나)는 모두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나'라는 시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5. <답> ④

㉣는 구체적 대상을 시적 화자의 추상적 정서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시적 화자의 서러움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6. <답> ⑤

시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화자를 거부했

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분위기 상 그 사람도 화자를 사랑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답> ③

(나)의 화자가 다시는 입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에 빠져 좌절하고만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없다.

8. <답> ⑤

(나) 작품에서 화자가 뒷동산에 올라서 흑여 임이 올라와 봄바람을 씌며 건너편 산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9. <답> ①

(가)의 화자는 '해당화', (나)의 화자는 '감나무'를 활용하여 '한'과 '서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0. <답> ④

이 작품은 해당화를 매개로 돌아오지 않는 입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11. <답> ④

(나)는 (가)와 달리 1연에서 도치법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12. <답> ⑤

화자는 '그 사람' 역시 화자처럼 한(恨)을 느끼며 살았을 것이라고 하며 이 점을 자신과 '그 사람'을 잇는 매개로 인식하고 있다. 후반부에서 화자는 자신의 사랑을 '그 사람'이 받아들여 주지 않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 내면에 깔린 것은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다. ㉤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바로 앞에 있는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설움으로 살았는지 어쨌던지'라는 표현과 관련지어 ㉤을 이해하자면, '그 사람' 역시 화자처럼 한(恨)을 느끼며 살았으며 화자는 한(恨)을 자신과 '그 사람'을 잇는 매개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13. <답> ①

(나)의 화자는 '감나무'를 매개로 하여 임에게 달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임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종이 연'에, 임을 만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쌍쌍이 나는 새', '밝은 달빛'에 비유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14. <답> ③

㉞는 ㉜와 달리 시간의 흐름 속에 감정이 기다림에서 야속함으로 변화한다.

15. <답> ⑤

(가)에서는 '해당화'와 '당신' 등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고, (나)에서는 '감나무'와 '열매' 등의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여하고 있다.

16. <답> ⑤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땀던지 /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이라는 구절로 미루어 볼 때, 화자는 '그 사람'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설움'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른다는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의 이러한 생각은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그 사람'에 대한 이해로 바뀌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17. <답> ④

<보기>는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를 통해 문학적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표현하였고, 모란이 낙화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서지정보
저자 이재균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6673-672-8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1.02.22
가격 1500원

